< 말이가 글이가 > 교수자용

머리말 - 다름을 이해하는 첫걸음 — 언어와 문화의 문을 열며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문화·사고방식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일은 단어와 문법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낳고 키운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만나는 일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다른 언어권에서 온 학습자들은 종종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쓰는 표준어·교과서 언어가 자신의 첫 언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결코 열등함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영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유도, 그 언어가 본질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정치적 권력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어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역시 다른 언어와 비교했을 때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언어도 완벽하지 않으며, 각 언어는 고유한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학습자에게 큰 해방감을 줍니다.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이가 글이가〉는 이 ‘다름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존중과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교수 자료입니다.

이 책은 학습자의 첫 언어를 무시하지 않고 그 언어와 한국어가 ‘다름’ 속에서 어떻게 만나고 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이 자료의 활용 방법 >

본 자료는 교수자용입니다.

각 장에는 해당 개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달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수자는 먼저 이론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한 뒤 아이의 연령·배경·언어 수준에 맞게 내용을 변형합니다.

‘다름’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이므로 평가보다는 경험·활동 중심의 수업을 지향합니다.

< 변환 포인트 >(아이 버전으로 옮길 때)

‘언어=문 여는 방법’ 비유로 단순화

‘다름=틀림 아님’ 메시지를 반복

실제 생활 예시(인사말·색 이름·숫자 등)로 비교 놀이

권력·역사 이야기는 ‘집 크기와 편의 시설’ 등 비유로 전환

〈말이가 글이가〉

말이가 글이가 수업은 학습자들이 한글을 단순히 기호로 익히는 것을 넘어, 언어의 구조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은 나선형 구조로 설계되어, 각 차시에서 다룬 핵심 개념이 이후 차시에서 반복·확장되며 학습자의 기억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한다.

1차시

오늘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같다”를 몸으로 느끼게 한다. 그림 한 장을 고르고 우리 집 언어로 뭐라 하는지 먼저 말해 본 뒤, 같은 장면을 한국어로도 말해 본다. 서로의 표현을 칠판에 나란히 붙이며 우열을 묻지 않고 차이를 발견한다. 마지막에 “다름=틀림 아님”을 한 문장으로 말하고, 집에서 가족에게 같은 장면을 두 언어로 다시 말해 오게 한다.

2차시

같은 상황에서도 말투가 달라진다는 걸 경험한다. 부탁·거절·인사 장면을 짧게 연기해 보고, 한국어(존댓말/반말)와 우리 집 언어의 말투를 말풍선에 적어 본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가 바뀌면 느낌이 달라지는 걸 서로 묘사하며, 무례/예의의 경계를 안전하게 연습한다.

3차시

이제 말한 것을 글로 남겨 ‘우리 반 이중언어 사전’ 초안을 만든다. 상황을 고르고 자기 언어 표현과 한국어 표현을 나란히 쓰고, 느낌·차이점을 색연필로 표시한다. 발표는 짧게 돌려가며, 서로의 표현 중 배워 쓰고 싶은 것을 체크해 둔다.

4차시

표현 뒤에 숨은 이유와 배경을 찾는다. 명절·학교·가족모임 같은 그림을 보고 “왜 이런 말을 쓸까?”를 추측하고, 실제 경험이나 가족 이야기를 꺼내어 이유 칸에 적는다. 정답을 강요하지 않고, 모르면 함께 찾아보며 “말에는 이야기가 있다”를 확인한다.

5차시

배경을 안 상태로 행동까지 포함한 역할극을 해 본다. 인사·감사·부탁을 한국식 버전과 우리 집 문화 버전 두 가지로 연기하고, 말+몸짓이 함께 있을 때 더 잘 통한다는 걸 체감한다. 실수는 즉시 고치되, 웃으며 격려하는 분위기를 유지한다.

6차시

이번엔 두 문화가 함께 있는 자리를 가정한다. 식사·행사·수업처럼 혼합 상황 카드를 뽑아 양쪽 문화의 규칙을 표로 비교하고, 모두가 편한 중립·조율 표현을 만든다(예: 두 손+눈맞춤처럼 합친 방식). 한쪽만 따랐을 때 생기는 문제와 조율안의 차이를 짧게 시연한다.

7차시

실제 또는 가상의 오해 사례를 조별로 분석한다. 사건을 요약하고, 각 문화의 규칙과 감정이 엇갈린 지점을 표시한 뒤,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한 해결안을 설계한다. 발표 때는 ‘비판’보다 ‘제안’ 중심으로 피드백하며 설득력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한다.

8차시

배운 것을 행사 기획으로 묶는다. 조별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정하고 목표·역할·물품을 적는다. 음식·놀이·언어 안내에서 생길 차이를 미리 점검표로 찾고, 모두가 참여 가능한 형태로 간단한 리허설까지 해 본다.

9차시

행사를 실행한다. 교사는 시간·안전만 잡고, 아이들이 운영과 즉석 문제 해결을 맡는다. 규칙이 안 통하면 쉬운 말·그림으로 즉시 재안내하고, 자원이 모자라면 조율안을 선택해 본다. 끝나고 바로 현장 소감을 짧게 모아둔다.

10차시

과정을 성찰·기록한다. 각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어려웠던 점과 해결법, 다음에 바꿀 점을 글·그림으로 남기고 조별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 서로의 성장 지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3가지 약속을 정하며 마무리한다.

메모: 모든 차시는 도입→탐구/활동→공유→정리 골격을 유지하고, 재수업이 필요하면 목표는 그대로 두고 활동만 변형해 반복한다.

※ 차시 목표 예시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존재함을 이해한다.

"다름=틀림 아님"이라는 기본 태도를 형성한다.

자기 언어와 한국어를 비교·대응하는 활동을 경험한다.

1. 수업 개요 예시

대상: 다문화 가정 아동 또는 2차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초등 저학년 수준

시간: 40분 내외

형식: 소집단+전체활동 혼합

재사용 가능성: 반복 시 활동 변형으로 2~3회 재수업 가능

2. 준비물 예시

그림카드(인사, 감정, 음식 등) 4~6종

언어라벨 스티커(공란)

매칭판(A3 또는 칠판)

판서안(핵심 문장: "다름=틀림 아님")

3. 수업 흐름 예시

도입 (5분)

그림카드 2장 제시 → "이 장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메시지 제시: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탐구 (15분)

각자 자기 언어로 해당 그림의 표현 쓰기(또는 말하기)

같은 그림에 한국어 표현 추가

서로 비교하며 발음·길이·표현 방식의 차이를 관찰

연결 (15분)

상황-표현 매칭 놀이: 장면카드 ↔ 표현카드

간단한 역할놀이: 인사 → 대답 → 자기 언어 버전 공유

정리 (5분)

오늘 배운 핵심 문장 다시 읽기/말하기

가정연계 활동 안내

4. 교수자 유의사항 예시

문화적 민감성: 우열 비교 언급이 나오면 "다름"의 개념으로 재프레이밍

참여 촉진: 발화가 어려운 학생은 그림카드에 스티커 붙이는 활동부터 시작

반복 수업 시: 카드나 상황만 변경, 목표·메시지는 동일 유지

5. 가정연계 활동 예시

오늘 사용한 그림카드 중 3장을 집에 가져가 가족에게 자기 언어와 한국어로 표현을 물어보고 적어오기

부모 안내문 키워드: "비교", "존중", "재미"

�� 이 예시안은 교수자가 변형·재구성하기 위한 참고 틀입니다.

차시별 필수 목표·핵심 메시지는 유지하되, 활동·자료는 학습자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바꾸면 됩니다.

�� 〈말이가 글이가〉 1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다른 언어, 다른 문화 —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2. 학습 목표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함을 이해한다.

'다름=틀림 아님'이라는 관점을 학습한다.

자기 언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는 기초 경험을 한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이 차시는 단순히 단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문화 비교·이해 태도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학습자는 이미 한국어를 1차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뿌리에는 부모의 언어·문화가 있습니다.

‘나는 두 개 이상의 언어·문화를 가진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언어 교육의 초기에 이를 확립하면 이후 발음·어휘·문법 학습에서 불필요한 열등감·저항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저학년, 2차어로 한국어 학습 중인 학습자

시간: 40분

형식: 도입(5분) → 탐구(15분) → 확장 활동(15분) → 정리(5분)

5. 준비물

그림카드(감정, 인사, 사물, 음식 등) — 6~8장

언어라벨 스티커(공란, 색 구분 가능)

매칭판(A3 또는 칠판 공간)

판서안: ‘다름 = 틀림 아님’

예시 발음 녹음파일(선택)

부모 안내문(가정연계 활동 안내 포함)

6. 세부 수업 흐름

�� 도입 (5분)

목적: 흥미 유발 + 학습 주제 제시

교수자 발문 예시

"이 그림 속 인물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림카드 제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럼 집에서 쓰는 말로는요?"

교수 팁

첫 발문은 개방형, 정답 요구 X

표정·몸짓을 적극 사용해 학습자의 감각 자극

�� 탐구 (15분)

목적: 자기 언어와 한국어 비교 체험

활동 1: 내 언어·한국어 라벨링

학습자별로 같은 그림카드를 나눔.

자기 언어로 표현 → 스티커에 적기 → 카드에 붙이기.

같은 그림의 한국어 표현 추가 작성.

활동 2: 발음 비교 듣기

학습자가 자기 언어로 발음 → 교수자가 한국어로 발음 → 서로 들어보기.

교수 팁

글씨를 못 쓰는 학습자는 말로만 발표, 교사가 받아 적기.

부끄러움 많은 학습자는 먼저 소집단 활동 후 발표.

�� 확장 활동 (15분)

목적: 다른 표현과의 상호작용 경험

활동 3: 상황-표현 매칭 게임

매칭판에 그림카드와 표현카드를 섞어 놓고, 팀별로 올바르게 매칭하기.

활동 4: 역할놀이

예) 인사 → 대답 / 감사 인사 → 응답

한국어 버전과 자기 언어 버전 모두 해보기.

교수 팁

경쟁 요소는 최소화, 협력 형태로 진행.

반복 시 그림·상황만 바꿔 2~3회 재활용 가능.

�� 정리 (5분)

목적: 핵심 메시지 강화 + 가정연계 안내

판서된 문장 ‘다름 = 틀림 아님’을 다 함께 읽기·말하기.

교수자 발문 예시

"오늘 새로 알게 된 말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말해요’를 한 번씩 말해보기.

가정연계 안내: 오늘 배운 2~3개 표현을 가족과 함께 비교 기록해오기.

7. 교수자 유의사항

문화적 민감성 유지: 우열 비교 대신 ‘다름’ 강조

참여 독려: 발화가 힘든 학습자는 비언어 활동부터 참여

재수업 시 변형: 동일한 메시지 유지, 자료·상황만 변경

부모 참여 유도: 가정연계 활동은 반드시 부모 안내문과 함께 제공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오늘 배운 그림카드 3장을 집으로 가져가 가족에게 자기 언어와 한국어로 표현을 물어보고 한국어·자기 언어를 함께 적어서 다음 시간에 발표

부모 안내 키워드: ‘비교, 존중, 재미’

�� 이 1차시안은 ‘교수자용’이므로

학습자 교재에는 활동 순서·간단 지시문·그림·표현만 제공

교수자 교재에는 이유·배경·발문·변형 방법까지 모두 포함

�� 〈말이가 글이가〉 2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다른 언어, 다른 말투 — 말 속에 문화가 숨어 있다

2. 학습 목표

같은 상황이라도 언어·문화에 따라 말투·표현이 달라짐을 이해한다.

자기 언어와 한국어 말투·표현을 비교해본다.

다양한 표현 방식이 가진 장점을 발견한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1차시에서 ‘다름 = 틀림 아님’이라는 기본 태도를 세웠다면

2차시는 그 ‘다름’이 단어·문장뿐 아니라 말투와 표현 방식에도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존댓말·반말·완곡 표현 등에서 문화적 차이를 느끼게 하여 한국어에서 말투가 의미와 감정을 크게 바꾼다는 점을 인식시킵니다.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저학년, 2차어로 한국어 학습 중인 학습자

시간: 40분

형식: 도입(5분) → 탐구(15분) → 확장 활동(15분) → 정리(5분)

5. 준비물

상황카드(인사, 부탁, 거절, 감사, 칭찬 등) — 6~8장

말투 예시 대본(한국어 존댓말·반말, 자기 언어의 유사/차이 예시)

말풍선 카드(공란, 색 구분 가능)

칠판/화이트보드

부모 안내문(가정연계 활동 안내 포함)

6. 세부 수업 흐름

�� 도입 (5분)

목적: 상황에 따른 말투 차이 경험

교수자 발문 예시

"친구에게 ‘안녕’ 할 때와 선생님에게 ‘안녕하세요’ 할 때, 뭐가 달라요?"

"우리 집 말로는 어떻게 하나요?"

교수 팁

짧은 대화 시범(교사 2명 또는 학습자 1명 참여)으로 차이 시각화

어투·표정·제스처 변화까지 보여줌

�� 탐구 (15분)

목적: 말투 비교·분석

활동 1: 말투 라벨링

상황카드 제시

학습자들이 자기 언어·한국어 버전을 말풍선 카드에 적기

존댓말·반말 구분 색으로 표시

활동 2: 감정 전환 실험

같은 문장을 존댓말과 반말로 각각 말해보기

느낌 차이를 이야기 나눔

교수 팁

글쓰기 어려운 학습자는 그림/기호 사용 가능

반말 표현 시 장난스러운 분위기 허용하되, 무례와 장난의 차이 지도

�� 확장 활동 (15분)

목적: 문화별 말투 장단점 발견

활동 3: 완곡 vs 직설 대화

예) "그건 조금 어려워요" vs "그건 안 돼요"

한국어·자기 언어에서 어떤 표현이 더 많이 쓰이는지 토론

활동 4: 상황극 변형하기

같은 상황(예: 친구에게 부탁하기)을 여러 말투로 바꿔보기

다른 팀은 말투만 보고 상황 추측하기

교수 팁

상황극은 시간 맞춰 1~2문장 정도로 간단히

한국어 버전과 자기 언어 버전 모두 해보게 함

�� 정리 (5분)

목적: 문화적 다양성 이해 강화

판서: ‘말투 속에 문화가 있다’ 함께 읽기

교수자 발문 예시

"오늘 배운 말투 중에서 재밌었던 건 뭐였나요?"

"우리 집 말과 한국어 중 어느 쪽이 더 완곡하거나 직설적인가요?"

가정연계 안내: 가족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말투’를 찾아 기록해오기

7. 교수자 유의사항

우열 비교 금지: 말투 차이를 문화적 다양성의 증거로 설명

역할놀이 안전망: 무례 표현 실습 시 ‘수업 내 연습’임을 강조

재수업 시 변형: 상황카드와 말풍선 내용만 바꿔도 새로운 수업 가능

부모 연계: 부모에게 존댓말·반말, 완곡·직설 예시 요청하기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오늘 배운 2가지 상황(예: 부탁, 거절)을 집에서 자기 언어와 한국어로 각각 말해보기

가족 중 한 명과 역할극 1회 이상 진행 후, 느낌 차이 기록

부모 안내 키워드: “말투 비교, 문화 이야기, 즐겁게”

�� 1차시-2차시 연결 포인트

1차시: 언어·단어 차이 중심

2차시: 말투·표현 차이 중심

모두 ‘다름=틀림 아님’ → ‘문화 다양성 존중’으로 귀결

�� 〈말이가 글이가〉 3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다름을 글로 담다 — 내 말과 한국어의 공존 기록

2. 학습 목표

같은 의미를 자기 언어와 한국어로 각각 표현하고 기록할 수 있다.

두 언어의 차이·공통점을 글로 정리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나만의 ‘다문화 표현 사전’ 초안을 만든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1·2차시에서 경험한 단어·말투 차이를 ‘말하기’ 중심으로 익혔다면 3차시는 이를 ‘글쓰기와 기록’으로 전환해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기록은 학습자가 언어를 ‘보는 힘’을 기르고, 비교·분석의 습관을 만듭니다. 특히 시각자료(표, 그림)를 함께 사용하면 초등 저학년도 쉽게 참여 가능.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저학년, 2차어로 한국어 학습 중인 학습자

시간: 40분

형식: 도입(5분) → 기록 실습(20분) → 공유·확장(10분) → 정리(5분)

5. 준비물

이중언어 기록지 (표 형식: 상황 / 자기 언어 표현 / 한국어 표현 / 느낌)

색연필·마커

상황 그림 카드(2~3장) — 예: 인사, 칭찬, 거절, 부탁

샘플 ‘다문화 표현 사전’ 한 페이지 예시

가정연계 안내문

6. 세부 수업 흐름

�� 도입 (5분)

목적: 1·2차시 내용 복습 후 글쓰기 전환 준비

교수자 발문 예시

"지난 시간에 어떤 말투가 재밌었나요?"

"오늘은 그걸 글로 적어서 사전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교수 팁: 지난 차시 활동 결과(말풍선 카드 등)를 시각자료로 재활용

�� 기록 실습 (20분)

목적: 두 언어를 나란히 쓰고 비교

활동 1: 상황별 기록

상황 그림카드 선택 (2~3개)

자기 언어·한국어 표현을 각각 기록

느낀 점·차이점을 간단히 그림 또는 단어로 표시

활동 2: 색상 코딩

자기 언어 = 파란색, 한국어 = 빨간색, 공통단어 = 초록색

시각적으로 차이·공통점 한눈에 확인

교수 팁

쓰기 어려운 학습자는 그림+간단 단어만

학습자 수준별 차별화: 상급자는 문장 단위 작성

�� 공유·확장 (10분)

목적: 기록을 언어 비교와 문화 이해로 확장

활동 3: 미니 발표

각자 기록한 표현 중 흥미로운 차이 1~2개 공유

활동 4: 사전 페이지 합치기

반 전체 기록을 모아 ‘우리 반 다문화 표현 사전’ 초안 제작

교수 팁

발표는 짧게, 모든 학습자에게 기회 주기

발표 중 문화 이야기 자연스럽게 덧붙이기

�� 정리 (5분)

목적: 기록의 가치 확인

판서: ‘글로 남기면 오래 기억된다’ 읽기

교수자 발문 예시

"오늘 적은 말 중 집에서도 쓰고 싶은 건 뭐였나요?"

"다음에 더 추가하고 싶은 표현이 있나요?"

가정연계 안내: 가족과 함께 ‘다문화 표현 사전’ 한 페이지 완성하기

7. 교수자 유의사항

정답 강요 금지: 표현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님을 재확인

쓰기 부담 완화: 그림·기호·스티커 활용 가능

공유 시 안전한 분위기: 틀린 발음·표현 지적 대신 다양성 강조

반복 활용 가능: 매 차시 다른 상황 카드로 기록 확장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가족과 1가지 상황을 선택해 두 언어로 적고 그림 그리기

가족이 쓰는 다른 언어(있을 경우)도 추가 기록

다음 수업에 가져와 반 전체 사전에 추가

�� 1~3차시 연결 포인트

1차시: 언어·단어 차이 인식

2차시: 말투·표현 차이 인식

3차시: 차이를 기록·정리 → 사전 형태로 구체화

나선형 확장: 매 차시 새 상황·새 비교로 반복 가능

�� 〈말이가 글이가〉 4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다른 말 뒤에 숨은 이야기 찾기 — 문화와 맥락 이해

2. 학습 목표

다른 언어·말투가 나온 배경(문화, 환경, 역사)을 이해한다.

내 표현과 다른 사람 표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문화·언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이해 폭을 넓힌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앞선 3차시까지는 형태·표현을 중심으로 차이를 관찰·기록했다면 4차시는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어떤 문화와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탐구하는 단계입니다.

어린 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예시와 그림 자료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저학년, 2차어로 한국어 학습 중인 학습자

시간: 40분

형식: 도입(5분) → 문화 이야기 나누기(15분) → 배경 연계 표현 찾기(15분) → 정리(5분)

5. 준비물

문화·상황 그림 카드 (예: 설날, 생일, 학교, 시장, 가족 모임)

사물·행동 사진 자료 (예: 절, 악수, 손 인사, 선물 포장 방식)

3차시 ‘다문화 표현 사전’ 초안

이야기 나눔 활동지 (표: 표현 / 나온 상황 / 그 이유)

6. 세부 수업 흐름

�� 도입 (5분)

목적: 배경·이유 탐구의 필요성 제시

교수자 발문 예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은 표현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나라·그 가족의 문화 속에 이유가 숨어있어요."

지난 차시 ‘표현 사전’ 중 한 가지를 보여주고 이유 추측 유도

�� 문화 이야기 나누기 (15분)

목적: 표현과 문화·맥락 연결

활동 1: 문화 그림 카드 토론

카드 선택 후, 각 문화에서 해당 상황에서 하는 말·행동 설명

한국과 비교해 공통점·차이점 말하기

활동 2: 사진 자료 매칭

표현 → 사진 → 문화적 이유 연결

예: “생일 때 긴 수염 그림이 왜 있지?” → “나이·장수를 기원하는 문화”

교수 팁

발표는 ‘틀림’ 지적 없이 ‘다름’ 강조

잘 모르는 경우 추측 가능, 정답보다 탐구 과정 중시

�� 배경 연계 표현 찾기 (15분)

목적: 표현의 이유를 스스로 탐구·정리

활동 3: 이유 기록하기

3차시 사전에서 표현 1~2개 선택

해당 표현이 왜 쓰이는지 가족·친구·교수자 도움 받아 기록

활동 4: 이유 공유

조별로 서로 다른 이유를 모아 ‘배경 이야기 모음’ 작성

전체 판서: 다양한 이유 한눈에 보기

교수 팁

학습자 수준별 차별화: 글쓰기 힘든 경우 그림+단어

실제 경험이 없는 경우, 교수자가 간단한 문화 배경 이야기 제공

�� 정리 (5분)

목적: 배경 이해의 가치 강조

판서: ‘말에는 이야기가 있다’

교수자 발문 예시

"오늘 알게 된 가장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문화 표현을 들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가정연계 안내: 가족에게 배운 다른 문화의 말·이야기 하나를 집에서 적어오기

7. 교수자 유의사항

배경 설명은 간단·재미있게: 복잡한 역사·사회 용어는 피하고, 생활 속 이야기로 풀기

모르는 배경은 함께 탐구: 정답 강요보다 탐색 과정 중시

시각자료 적극 활용: 어린 학습자는 글보다 그림·사진이 이해에 효과적

사전 연결 유지: 3차시 기록물에 ‘이유’ 칸을 추가해 사전 확장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가족에게 자주 쓰는 말 1개와 그 이유 물어보기

해당 표현을 그림·사진과 함께 기록

다음 수업 때 친구들에게 소개

�� 1~4차시 연결 포인트

1차시: 단어 차이 인식

2차시: 말투·표현 차이 인식

3차시: 기록·정리(사전 형태)

4차시: 차이의 배경·이유 탐구

나선형 확장: 이후 차시에서 배경 이해를 새로운 표현·상황으로 반복 가능

�� 〈말이가 글이가〉 5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다른 문화 속 대화 연습하기 — 역할극으로 표현과 배경 연결

2. 학습 목표

다른 문화·표현을 실제 대화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한다.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체험한다.

상황·상대에 맞는 표현 선택 능력을 기른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4차시까지는 ‘이유 알기’ 중심이었다면, 이번 5차시는 직접 해보기 단계입니다.

문화 배경을 알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쓰지 못하면 배움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역할극·시뮬레이션은 학습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실수·수정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저학년, 2차어로 한국어 학습 중인 학습자

시간: 40분

형식: 도입(5분) → 상황 이해(10분) → 역할극 준비(10분) → 역할극 수행(10분) → 정리(5분)

5. 준비물

상황 카드 (예: 시장에서 물건 사기, 생일파티, 학교 인사, 설날·추석 인사)

문화별 행동·표현 사진 자료 (예: 악수, 절, 손 인사, 허그)

역할극 대본 틀 (빈칸 채우기 형식, 수준별 차등 제공)

간단한 소품(모자, 인형, 가방 등)

6. 세부 수업 흐름

�� 도입 (5분)

목적: 표현+행동의 결합 강조

교수자 발문 예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표현, 진짜 사람 앞에서 해 볼까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해보면 어때요?"

간단한 시범: 한국식 인사(고개 숙임) vs 다른 문화 인사(악수·허그)

�� 상황 이해 (10분)

목적: 상황 맥락+표현 매칭

활동 1: 상황 카드 뽑기

조별로 카드 선택 후, 카드 속 상황 설명

해당 상황에서 각 문화권에서 어떤 표현·행동을 쓰는지 이야기

활동 2: 문화별 사진 자료 매칭

상황 → 표현·행동 연결, 이유 간단히 복습

�� 역할극 준비 (10분)

목적: 실제 사용 연습 전 준비

활동 3: 대본 틀 채우기

대본 틀: ", 안녕하세요!" / ", 감사합니다!" 등 빈칸 채우기

배경·이유를 고려해 문화별 버전 2가지 작성

활동 4: 소품 준비·동작 연습

소품 활용하여 행동까지 포함

서로 보고 피드백(자연스러운지, 맞는 행동인지)

�� 역할극 수행 (10분)

목적: 표현+행동의 실제 적용

조별 시연:

버전 1: 한국식

버전 2: 다른 문화식

시연 후, 다른 조가 차이와 이유 설명

교수 팁

실수는 수정 기회로 활용

웃으며 격려하는 분위기 유지

�� 정리 (5분)

목적: 경험의 의미 되짚기

판서: ‘말+행동=문화’

교수자 발문 예시

"말만 했을 때와 행동까지 했을 때, 뭐가 달랐나요?"

"다른 문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가정연계 안내: 가족·친구에게 오늘 배운 인사+행동 보여주기

7. 교수자 유의사항

안전·편안한 분위기: 학습자가 긴장하지 않도록 유머·격려 활용

문화 민감성 주의: 풍습을 흉내내는 것이 비하가 되지 않도록 지도

수준별 대본 제공: 언어 수준 낮은 학습자는 단어·짧은 문장 중심, 높은 학습자는 문장 확장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가족에게 한국식·다른 문화식 인사 둘 다 해보기

가족 반응·느낌 기록해오기

다음 차시 때 서로 비교 발표

�� 1~5차시 연결 구조

차이 인식(단어)

차이 인식(말투·표현)

기록·정리(사전 형태)

배경·이유 탐구

실제 상황 적용(역할극)

�� 〈말이가 글이가〉 6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두 문화가 만났을 때 — 혼합 상황 해결하기

2. 학습 목표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모두가 이해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한다.

문화 충돌 상황에서 오해를 줄이는 말과 행동을 사용한다.

타협·조율 능력을 기른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언어와 문화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는 한쪽 문화만 고집하면 오해·불편이 생깁니다.

이 차시는 서로 다른 문화의 규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을 다루며 학습자가 중립적·조율형 표현을 익혀 실제 생활에서 갈등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저학년, 한국어 2차어 학습자

시간: 40분

형식: 도입(5분) → 상황 제시·분석(10분) → 해결안 토의(10분) → 역할극 적용(10분) → 정리(5분)

5. 준비물

혼합 상황 카드 (예: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있는 식사 자리

명절 행사에 외국인 친구 초대

다문화 학교 행사 진행)

문화별 금기·권장 행동 표

중립 표현 카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등)

상황 대본 틀

6. 세부 수업 흐름

�� 도입 (5분)

교수자 발문 예시

"한국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이 함께 있을 땐,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 문화에 맞추면 다른 쪽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짧은 예시 시연: 한쪽 문화만 따른 경우 vs 중립 표현 사용한 경우 비교

�� 상황 제시·분석 (10분)

활동 1: 혼합 상황 카드 뽑기

활동 2: 카드 속 상황에서 양쪽 문화 규칙 파악

표로 정리: 문화 A / 문화 B / 공통점 / 차이점

예: 한국 — 두 손으로 물건 건네기 / 미국 — 한 손으로도 가능, 눈 맞춤 필수

�� 해결안 토의 (10분)

활동 3: 중립·조율안 만들기

두 문화 규칙을 모두 존중하는 방법 찾기

예: 물건 건넬 때 두 손 + 웃으며 눈 맞춤

조별 토의 후 발표

교수 팁: 단순히 ‘반반 섞기’가 아니라 ‘모두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을 찾도록 유도

�� 역할극 적용 (10분)

조별로 상황 재연

버전 1: 한쪽 문화만 따른 경우 → 문제점 찾기

버전 2: 조율안 적용 → 긍정적 변화 확인

다른 조가 평가·피드백

�� 정리 (5분)

핵심 문장: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자” 판서

가정연계 안내:

집에서 다른 문화 사람과 대화할 때 오늘 배운 방법 적용해보기

가족과 ‘두 문화가 만나는 상황’ 이야기 나누기

7. 교수자 유의사항

중립안 찾기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지도

문화권별 예시가 편견·비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표현 주의

시간 배분 시 토의와 역할극 모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절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가족 중 다른 문화 경험이 있는 사람 인터뷰

‘두 문화가 만나면…’ 주제로 그림·짧은 글 작성

다음 차시에 공유

�� 1~6차시 나선형 연결

차이 인식(단어)

차이 인식(말투·표현)

기록·정리

배경·이유 탐구

단일 문화 상황 적용(역할극)

다문화 혼합 상황 적용·해결

�� 〈말이가 글이가〉 7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갈등, 풀 수 있을까? — 문화 오해 해결 프로젝트

2. 학습 목표

실제 또는 가상의 문화 오해 사례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한다.

문화권별 입장을 존중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협력과 발표를 통해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을 연습한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다문화 사회에서는 ‘차이’가 곧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시는 단순히 중립 표현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실제 갈등을 분석·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 원인 분석 → 해결안 설계 → 발표 과정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중·고학년, 한국어 2차어 학습자

시간: 40~45분

형식: 도입(5분) → 사례 분석(10분) → 해결안 설계(10분) → 발표·피드백(15분) → 정리(5분)

5. 준비물

실제·가상의 문화 갈등 사례 카드 (3~4종)

예: 명절에 윷놀이 중 규칙 차이로 다툰 경우

모임에서 음식 예절 차이로 불편함이 생긴 경우

원인 분석 표 (사건·관련 문화 규칙·오해 지점·감정 상태)

해결안 설계 템플릿

발표용 종이/보드

6. 세부 수업 흐름

�� 도입 (5분)

교수자 발문 예시

“혹시 친구나 가족과 오해가 생긴 적 있나요?”

“다른 나라 사람과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짧은 시연: 오해를 방치했을 때 vs 바로 해결했을 때 차이 보여주기

�� 사례 분석 (10분)

활동 1: 문화 갈등 사례 카드 배부

활동 2: 조별로 원인 분석 표 작성

사건 상황 요약

각 문화권 규칙 비교

오해·감정 발생 지점 표시

교수 팁: ‘누가 잘못했다’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집중하도록 유도

�� 해결안 설계 (10분)

활동 3: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 만들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표현 예시 문장 포함

교수자 질문 예시

“이 해결안이 모두에게 공평한가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발표·피드백 (15분)

조별 발표 (3~4분씩)

나머지 조는 질문·의견 제시

교수자 피드백 포인트

해결안의 실현 가능성

표현의 예의·존중 여부

갈등 예방 효과

�� 정리 (5분)

오늘의 핵심 문장: ‘오해는 이해로 풀자’ 판서

가정연계 안내:

가족과 최근 있었던 오해나 갈등 사례를 이야기하고, 오늘처럼 해결안 설계하기

7. 교수자 유의사항

학생이 감정적으로 몰입해 다른 문화를 비하하지 않도록 관리

발표 시 ‘비판’보다 ‘제안’ 중심으로 피드백하게 지도

시간 관리: 분석·설계 단계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유도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가족 인터뷰: ‘우리 집에서 있었던 문화 오해와 해결 방법’

다음 차시 때 공유·토론

�� 나선형 확장 맥락

1~4차시: 차이 인식·배경 이해

5~6차시: 단일·혼합 상황에서 조율 훈련

7차시: 실제 갈등 사례 분석·해결 훈련

8차시부터는 프로젝트형 문화 교류·창작 활동으로 확장 가능

�� 〈말이가 글이가〉 8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함께 만드는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2. 학습 목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한다.

차이와 갈등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세운다.

준비·실행·발표를 통해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한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단편적인 문화 지식이나 언어 표현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의 협력과 조율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차시는 모든 배운 내용의 종합 실습 단계로, 학생들이 직접 ‘다문화 어울림 행사’를 기획·운영하며 배운 가치와 기술을 적용합니다.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중·고학년, 한국어 2차어 학습자

시간: 40~45분 × 2차시 연계(준비→실행) 권장

형식: 도입(5분) → 기획(15분) → 준비(15분) → 공유·정리(10분)

5. 준비물

행사 기획 시트(목표·참여 대상·프로그램·역할 분담·필요 물품)

갈등·차이 점검표 (예: 음식·놀이·언어·시간 관련 차이)

간단한 행사 자료 예시(사진, 포스터)

준비용 소품(역할극·게임 도구, 포스터 재료 등)

6. 세부 수업 흐름

�� 도입 (5분)

교수자 발문 예시

“우리가 배운 문화 이해와 조율 능력을 행사에 써 본다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시 사진·영상 1~2개 시청 (다문화 축제, 학교 행사)

�� 행사 기획 (15분)

활동 1: 조별로 행사 주제 선정

예: ‘세계 음식 나눔 데이’, ‘다문화 놀이마당’, ‘전통의상 패션쇼’

활동 2: 기획 시트 작성

행사 목표

프로그램 구성

역할 분담(사회·준비·홍보·진행 등)

필요 물품 목록

교수 팁: 주제와 내용이 단순해도 ‘모두가 참여 가능’하게 설계하도록 지도

�� 준비·사전 점검 (15분)

활동 3: 갈등·차이 점검표 작성

음식 알레르기, 종교적 금기, 놀이 규칙 차이 등 사전 조율

활동 4: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예: 놀이 규칙 간단히 해보기, 발표 대사 연습

교수자 유도 질문

“혹시 누군가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내할까요?”

�� 공유·정리 (10분)

각 조별 기획안 발표 (5분)

다른 조의 피드백 듣기

교수자가 행사 성공 포인트 정리

사전 조율의 중요성

역할 분담의 균형

예기치 않은 상황 대비

7. 교수자 유의사항

아이디어가 크더라도 실행 가능한 범위로 조정

특정 문화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균형 유지

발표 시 행사 분위기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도록 유도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가족과 함께 행사 아이디어 구체화

집에서 필요한 소품·자료 준비

부모·가족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고민

�� 나선형 확장 맥락

1~4차시: 문화 차이 이해·존중

5~6차시: 조율·표현 훈련

7차시: 갈등 분석·해결 훈련

8차시: 종합 실습 — 행사 기획

이후: 실제 행사 실행 및 평가(9~10차시로 확장 가능)

�� 〈말이가 글이가〉 9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 실행과 현장 조율

2. 학습 목표

실제 행사를 운영하며 기획안을 실행에 옮긴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현장에서 협력하여 해결한다.

행사 종료 후 과정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준비와 기획만으로는 진짜 역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을 조율하며, 이해·협력·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발휘하게 합니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화 다양성 존중’을 행동으로 옮기는 최종 훈련이 됩니다.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중·고학년, 한국어 2차어 학습자

시간: 40~45분 × 2차시 이상 권장 (행사 규모에 따라)

형식: 준비 확인(5분) → 행사 실행(25분) → 마무리·성찰(15분)

5. 준비물

8차시에서 완성한 행사 기획안 및 역할 분담표

준비물·소품·홍보물

비상 상황 대응 카드(간단한 지침: “시간 초과”, “참여자 갈등”, “물품 분실” 등)

평가·피드백 시트

6. 세부 수업 흐름

�� 준비 확인 (5분)

행사 진행 순서, 역할 재점검

물품·자료 최종 체크

교수자가 전체 흐름과 안전 수칙 안내

�� 행사 실행 (25분)

조별 프로그램 운영 시작

교수자는 관찰자·조력자 역할

시간 관리

참여자 동선·안전 확인

돌발 상황 발생 시 조언

현장 조율 예시

음식이 모자랄 때: 다른 조와 나눔 제안

참여자가 규칙을 이해 못할 때: 쉬운 말·그림으로 재설명

시간 초과 시: 다음 순서 조정

�� 마무리·성찰 (15분)

행사 종료 후 소감 나누기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어려웠던 점과 해결 방법은?”

조별 개선점 발표

교수자가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3가지 팁 정리

역할 분담의 유연성

돌발 상황 대비 계획

문화적 차이를 미리 예측하는 안목

7. 교수자 유의사항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 주기

실패 경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다음 학습에 연결

모든 참여자가 행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가족에게 행사 이야기 나누기

집에서 행사 사진·영상 정리

다음 행사에 포함하고 싶은 아이디어 공유

�� 나선형 확장 맥락

8차시: 행사 기획·준비

9차시: 행사 실행·현장 조율

10차시: 행사 평가·포트폴리오 작성 → 전체 프로그램 회고

�� 〈말이가 글이가〉 10차시 — 교수자용

1. 차시명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 평가와 포트폴리오 완성

2. 학습 목표

행사 전 과정(기획·준비·실행)을 돌아보고 강점과 개선점을 도출한다.

사진·영상·자료를 정리해 학습 기록물(포트폴리오)을 완성한다.

성찰을 통해 다음 프로젝트 실행 역량을 높인다.

3. 교수 철학·설계 배경

교육의 완성은 실행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성찰은 학습자의 경험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며, 다음 시도에서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록물 제작은 학습자가 자신의 성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4. 대상·시간

대상: 다문화 가정 초등 중·고학년, 한국어 2차어 학습자

시간: 40분

형식: 개별 작성 + 조별 공유 + 전체 피드백

5. 준비물

행사 사진·영상

준비 과정에서 사용한 문서(기획안, 홍보물, 역할표 등)

성찰 질문 카드

포트폴리오 제작 도구(종이, 스크랩북, 디지털 템플릿 등)

6. 세부 수업 흐름

�� 회고 브리핑 (5분)

교수자가 “오늘은 행사를 되돌아보는 날”임을 알림

포트폴리오 완성 목적 설명

성찰 질문 제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나?

이번에 배운 점을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까?

�� 개별 성찰 작성 (10분)

학습자 각자 성찰 질문에 답 작성

글, 그림, 간단한 말풍선 등 자유 형식 허용

언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그림·사진 중심으로 작성

�� 조별 포트폴리오 편집 (15분)

조별로 행사 자료를 모아 구성

구성 예시

표지(행사명·날짜·참여자)

준비 과정(사진·메모)

행사 진행 장면

성찰·소감

다음 목표

디지털 포맷 또는 오프라인 스크랩북 중 선택

�� 공유·피드백 (7분)

각 조가 완성본 발표

다른 조의 좋은 아이디어·자료 공유

교수자가 긍정적 피드백과 발전 포인트 제시

�� 마무리·다음 단계 안내 (3분)

학습자에게 포트폴리오 사본 제공

가정과 공유하도록 안내

다음 프로젝트 또는 후속 활동 예고

7. 교수자 유의사항

평가 시 ‘잘한 점’을 먼저 언급하고 개선점을 제시

문화적 표현 차이를 존중하고 비교 비평 대신 상호 이해 강조

완성도보다 학습자의 참여·성찰 깊이를 중점 평가

8. 가정연계 활동 예시

가족과 포트폴리오 함께 보기

가족 의견을 받아 다음 행사 아이디어에 반영

행사 경험을 가족 언어로 기록해보기

�� 나선형 확장 맥락

8차시: 행사 기획·준비

9차시: 행사 실행·현장 조율

10차시: 행사 평가·기록물 완성 → 학습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음 단계로 연결